

‘K-푸드’로 귀국 후 인생역전의 꿈을 이어간다

- 귀환 네팔 외국인 근로자 위한 ‘K-푸드 취·창업 역량강화 교육’을 네팔 카트만두에서 실시

한국산업인력공단(이사장 이우영, 이하 ‘공단’)은 8월 4일(월)부터 8월 11일(월)까지 총 8일간 네팔 카트만두 현지에서 ‘K-푸드 취·창업 역량강화 특별교육’을 실시했다.

이번 프로그램은 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(KOICA)이 협업하여 2022년부터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으로 진행 중인 「네팔-한국 귀환노동자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사업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.

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-푸드(한식)를 주제로, 한국에서 근로를 마치고 네팔로 귀환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됐다.

이번 교육에는 국내 취업 후 귀환한 네팔 근로자 15명이 참가했다.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 한식 메뉴인 김밥, 떡볶이, 닭강정 등을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조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했다.

또한 소규모 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위생·경영 교육 등도 함께 진행했다.

특히, 조리 분야 국내 대표 교육기관인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의 김희연 교사와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의 하현수 교사가 직접 현지에서 실질적이고 질 높은 조리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.

교육에 참가한 하스타 라마 씨는 “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뼈해장국을 가장 좋아했다”라며, “네팔에서 한국식당을 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”라고 말했다. 또한 “이번 기회에 한식을 제대로 조리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”라며, “앞으로 창업해서 꼭 성공하겠다”라고 포부를 밝혔다.

향후 공단은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온라인 멘토링을 제공하고, 창업 자금 지원 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이다.

이우영 이사장은 “고국으로 복귀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K-푸드가 새로운 기회가 되길 응원한다”라며, “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국격 향상을 선도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HRD협력부	책임자	부 장	박형기 (032-509-1821)
		담당자	대 리	백송이 (032-509-1822)



